

“제주서 새로운 아이디어·열정 경험했다”

인터뷰-다울 마투데 메히아 주한 페루 대사 18~20일 제주컨벤션센터·국제대 등 방문

“페루는 제주와 마찬가지로 관광 산업이 높은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제주와 페루의 동반성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18일 제주를 방문한 다울 마투데 메히아(Daul Matute-Mejia) 주한 페루 대사는 본지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남미 대륙 중서부에 위치한 페루의 면적은 남한의 약 12배이며, 인구는 약 3200만명이다. 평균 경제 성장률이 5%내외로 안정적인 발전하고 있으며, 최근 5년 동안의 누적 경제성장률은 31.7%로 중남미에서 최고의 성장을 기록했다. 안정적인 국가운영과 관광 산업이 이런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현재 페루에 한류열풍이 불면서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애정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번에 한국 최고의 관광지인 제주도의 관광인프라를 경험한 것은 좋은 기회가 됐다. 특히 관광산업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현재 페루의 수도인 리마에도 컨벤션센터가 있지만 제주에 비해 규모와 역할이 적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털어놓았다.

다울 대사는 해양 생태계복원 프로젝트중 하나인 인공 어초 연구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그는 “자리돔이라는 작은 물고기 어초와 미역·감태와 같은 해조류를 번식시키는 어초를 혼합해 해양생태공원을 조



주한 페루 대사.

성한다는 것에 놀라웠고 지역별 특화된 어종을 중심으로 해양생태공원을 구축해서 어업 활성화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생산물을 이용한 관광상품화를 고민하고 있는 모습과 해양 드론을 이용해 근해지형지도 제작을 계획하는 것은 해양과 어업에 관해 가졌던 저의 보편적 생각을 넘어 새로운 아이디어와 열정을 경험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페루 역시 근해해양생태계가 많이 훼손되고 있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은 문제해결을 위해 페루에 있는 대학이 제주에 있는 대학과 MOU를 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다울 대사는 끝으로 “현재 페루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매우 확산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너무 멀리 떨어진 지리적 영향 때문에 페루에 대해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페루는 매우 뛰어난 자연환경과 치안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남미의 대표국가이자 임가문명의 발원지로 많은 한국인들이 페루를 방문하고, 상호교류를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다울 대사는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제주에 체류하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회의시설과 제주국제대학교 내 첨단해양양식시설 등을 방문했다.

고대기자 bigroad@ihalla.com

도개발공사 홀로사는 어르신에 온정

제주도내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는 제주개발공사가 추석 명절을 맞아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김경학)는 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의 홀로사는 어르신 세대를 방문해 현장에서 불편사항 청취와 더불어 추석명절을 위한 추석 선물꾸러미를 전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부터 진행되고 있는 이번 방문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위한 맞춤형 주거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홀로 거주하고 있는 76세대를 방문해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다.



공사에서 추진 중인 주거복지서비스 ‘두드림콜’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중 주변 지원체계가 미흡한 만 65세 이상의 홀로사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전화상담 및 방문을 통해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신속한 조치로 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작했다.

제주양돈농협 도농상생 한마음 전달식



제주양돈농협(조합장 고권진)은 지난 18일 조합장실에서 자연재해 지역 농업인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도농상생 한마음 전달식’을 개최했다.

그랜드보청기 오영수씨에 보청기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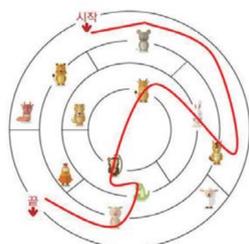


제주도 그랜드보청기(원장 강철)는 최근 노인성 난청으로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오영수씨에게 보청기를 기부했다. 그랜드보청기 측은 “오씨는 봉사활동에 출전수범 해온 분으로 그를 돕고자 기부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한라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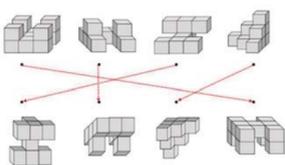
치매예방주간학습지 152회 정답

▶1번 문제



한 다는 뜻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자리를 뺐긴다는 뜻
② ‘꽃구멍이 돌이니 숨을 쉴 수 있지 ~’라는 뜻으로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답답하다는 뜻
③ 본래 휘어진 나무는 뽕뽕이 와도 꺾이지 않는다는 뜻으로 본 바탕이 비뚤어지면 마무리까지 비뚤어진다는 뜻
④ 깊은 물도 넘어야 알고, 사람 속도 지내야 안다는 뜻으로 사람은 겪어 봐야 진정 알 수 있다는 의미
⑤ 어머니는 좁쌀 만큼씩 빌려 오면, 아들은 그저 제 배만 부르게 먹는다의 뜻

▶2번 문제



▶ 김철길씨 별세, 김순일씨 남편상, 김경주(AIG손해보험(주)개인보험 본부실장)·정순(前제주시 농협부장)·정선(병무청)·정일(세화우체국장)·정숙(제주어보전회 사무국장)·정성·정춘씨 부친상, 유상정씨 시부상, 강임복(前광주·전남지방병무청 부청장)·문덕찬(前노령중학교교장)·이인철((주)동서시스템 대표이사, 제주도장애인육성연맹 회장)·김일권·이선형씨 부부상 ▶ 일포

▶3번 문제

① 소리가 변을 보기 위해 잠시 나온 사이에 집게가 들어가 빈 집을 차지

화 축

신랑 **백운호**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부 **백사훈** (성우로건(주) 대표)
모 **송복심**
신부 **송지선** [제주한국병원]
부 **송상훈**
■예식일시: 2020년 9월 27일(일), 오전 11시
■예식장소: 제주리마디프라자 2층 리마디 볼룸 (오전 11시 - 오후 6시)
■피로연 일시: 2020년 9월 27일(일/당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피로연 장소: 제주리마디프라자 2층 리마디 볼룸
*연락처: 신랑 010-5312-9885, 신부 010-4782-5709, 신랑부친 010-4682-9000, 신부부친 010-9458-6208

9월 23일(수) ▶ 발인일시 및 장소=9월 24일(목) 오전 7시 부민장례식장 4빈소 ▶ 장지=한경면 고산리 선영 ▶ 연락처=김경주 (010-4734-9400)·강임복 (010-3690-2801)·문덕찬 (010-3690-2451)·이인철 (010-2698-0643)·김정순 (010-3069-8325)·김정일 (010-6798-2451) ▶ 고원촌씨 별세, 박성철(前오현고등학교 교사)·기하·무순(前초등교사)씨 모친상, 윤무순씨 시모상, 이대영(前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씨 빙모상 ▶ 일포=9월 22일(화) ▶ 발인일시 및 장소=9월 23일(수) 오전 7시 중앙병원(이호중 소재) 장례식장 2분향실 ▶ 장지=아흔아홉골 선영 ▶ 연락처=박성철 (010-9666-6909)·박무순 (010-2626-1844)·이대영 (010-3696-1844)

화 축

피로연 안내
신랑 **고병재** [신한은행]
부 **고영욱** (前 제주제일중학교 교감)
모 **조인숙** (前 제주제일중학교)의 차남
신부 **한윤지** [한국병원약사회]
부 **한상섭** (前 인천하이테크고등학교 교사)
모 **장미숙** (인천해원중학교 교사)의 장녀
■신랑피로연 일시: 2020년 9월 26일(토요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신랑피로연 장소: 오리엔탈호텔 2층 연회장
*연락처: 신랑부친 010-9898-1602, 신랑모친 010-2699-1602

▶ 진찬순(前제주중앙고총동문회장)씨 별세, 고계순씨 남편상, 진범준·유경·효정씨 부친상, 강윤지씨 시부상, 고경범씨 빙부상 ▶ 일포=9월 23일(수) ▶ 발인일시 및 장소=9월 24일(목) 오전 9시 부민장례식장 3빈소 ▶ 장지=광령리 선영 ▶ 연락처=고계순 (010-9748-3113)·진범준 (010-4089-5067)

화 축

신랑 **강동훈** (동덕초등학교 선인분교장 행정실)
부 **강명준** (前시흥 근무)
모 **윤성희**의 장남
신부 **김보라** [신제주초등학교 교사]
부 **김상균**
모 **문의열**의 딸
■예식일시: 2020년 9월 26일(토) 오전 11시
■예식장소: 노팅힐 웨딩컨벤션 3층 웨딩홀 (제주시 도공로 157)
■피로연 일시: 2020년 9월 26일(토/당일) (오전 11시 - 오후 6시)
■피로연 장소: 노팅힐 웨딩컨벤션 1층(신랑측) 노팅힐 웨딩컨벤션 2층(신부측)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하여 하객 여러분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원호씨 별세, 문길중씨 남편상, 고동욱(前천교육청 장학사)·동현·민정씨 부친상, 남윤진·현경원씨 시부상, 현민호씨 빙부상 ▶ 일포=9월 23일(수) ▶ 발인일시 및 장소=9월 24일(목) 오전 8시 부민장례식장 9빈소 ▶ 장지=용강동 선영 ▶ 연락처=고동욱 (010-3693-6864)·고동현 (010-9167-0543)

화 축

신랑 **김만기** [이랜드건설]
부 **김학근**
모 **강향숙**
신부 **김지영** [前 정방동주민센터]
부 **김형삼** (前서귀포시청)
모 **김용란**
■신랑피로연 일시: 2020년 9월 27일(일요일) (오전 9시 - 오후 7시)
■신랑피로연 장소: 서귀포 농협 하나로미트 3층 (비석거리 북쪽 500m 지점)
*연락처: 신부 010-4028-4854, 신랑부친 010-3690-4854, 신부모친 010-9341-4854
■예식일시: 2020년 9월 26일(토) 오후 2시
■예식장소: 더그랜드컨벤션센터 1층 채플홀 (충북 제천시 청전동 450-10)

▶ 고원호씨 별세, 문길중씨 남편상, 고동욱(前천교육청 장학사)·동현·민정씨 부친상, 남윤진·현경원씨 시부상, 현민호씨 빙부상 ▶ 일포=9월 23일(수) ▶ 발인일시 및 장소=9월 24일(목) 오전 8시 부민장례식장 9빈소 ▶ 장지=용강동 선영 ▶ 연락처=고동욱 (010-3693-6864)·고동현 (010-9167-0543)

“관리 허술 유적지 보존대책 있어야” 제주문화원 17-18일 역사문화탐방 진행

가을바람이 불고 가랑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18일 아침, 제주도내 역사문화현장을 돌아보는 답사길에 올랐다. 제주문화원(원장 김봉오)이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회원 7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문화탐방이다.

상반기부터 진행 예정이었던 문화탐방은 코로나19로 인해 미뤄져 왔다. 중요한 내용들은 SNS를 이용해 비대면으로 회원들에게 전달됐고 하반기에는 대면으로 현장탐방을 진행할 예정이다.

답사에 나서기 전, 제주문화원 관계자는 참가자를 대상으로 마스크 착용과 명단 확인, 발열체크까지 꼼꼼히 챙겼다. 답사 첫날인 17일에는 제주시 화북동과 삼양동의 고인돌 중심으로 시작해 불탑사오층석탑, 삼사석, 선사유적지를 둘러봤고 둘째날인 18일에는 원도심 바닷가를 중심으로 제주시 삼도2동 지역 탐라총관부터 풍운뇌우단 터, 제사 터를 보고 용담동으로 이어져 고인돌 문화를 살펴봤다.

백종진 제주문화원 사무국장은 “매년 회원들을 대상으로 문화탐방이 이뤄졌는데 올해는 상황이 심각해 직원 포함 10명으로 현장답사 참가자를 마감했다. 신청하고도 선착순에 밀려 참가하지 못한 회원분들께는 마음이 아프다”면서 “특단의 대책으로 1회에 참가자를 적게 모집하고 여러차례 나눠하려고 준비했고 코로나19에 철저하게 대비해 진행하는 중”이라고 전했다.

이날 강사로 참여한 고영철 제주문화유산답사사회 회장은 “오랫동안 제주도내 역사문화 답사를 하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유적지가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사



제주문화원은 지난 17일부터 18일까지 문화탐방을 진행했다.

라지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며 “제주문화원은 매년 회원 대상으로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 보존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도에서 제주로 이주해 3년째 살고 있다는 한 참가자는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를 찾았더니 너무 좋은 것이 많다”며 “우선 제주를 알려면 많은 자료를 펼쳐봐야 하는데 나이가 들어 눈도 안 좋고 책을 보기도 그랬는데, 제주에서 무료로 현장답사와 실내 강의도 해주니 천국에 사는 기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옛 어른들이 제주는 인심이 넉넉하다고 했나하는 생각에 잠겨본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참가자들은 “집에서 생활하니 삶의 리듬도 깨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면서도 관리가 허술한 유적지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하루 속히 역사의 현장보존에 따른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봉오 제주문화원장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오라동주민자치위 문화마을 만들기

제주시 오라동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강완길)는 국가 지정 문화재 명승 제92호로 지정된 방선문이 자리한 오라동을 문화마을로 만들기 위한 걸음을 내딛고 있다.

방선문은 제주에서 풍광이 좋은 10곳을 일컫는 ‘영주 10경’의 하나로, 제주에 부임한 목사나 유배인 등 선비들이 풍류를 즐겼던 곳이다.

이에 오라동주민자치위는 방선문 가는 길가에 유배길 재현 장소로 만드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선문 마에명에 대한 문헌을 안내판으로 제작하는



것은 물론 인근 제주아트센터 뒷편 숲길에 문화공연이 가능한 무대를 조성하기도 했다.

신협중앙회 제주본부 제주지역협의회



제주지역 신협 지역협의회(회장 고문화)는 22일 메종글래드호텔에서 2020년도 제4차 제주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협의회에선 지역신용보증재단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실시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동부소방서 소방차 운용능력 강화 교육



제주동부소방서(서장 김학근)는 22일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소방차 운용능력 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펌프·구급차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습득하고 개인별 운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됐다.